교육비리·교원평가… 혼란 속 '청렴 캠페인' 나선 학교들

"스승의 날 촌지·선물 사양합니다"

일부 학부모 "그래도 찜찜…전달 여부 고민"

초등학생 아들(2학년)을 둔 학부모 오모(38·여·광주시 북구)씨는 최근 스승의 날을 앞두고 담임교사에게 촌지를 건네려다 얼굴만 붉히고 되돌아왔다.

오씨는 "아이의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는 데 극구 사양하더라"면서 "오히려 '교육비리 때문에 전국이 난리인 데 이러면 되겠느냐'는 핀잔만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촌지 때문에 마음고생을 겪었던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이모(38)씨도 촌지 전달 여부를 놓고 고민중이다.

이씨는 "지난해 아이를 이유없이 미워하던 교사가 촌지를 받은 이후 태도가 확 달라졌다"면서 "요즘 언론 등에서 교육비리가 연일 보도되던데, 촌지를 줘야할지, 준다면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할지 등을 고민하느라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스승의 날'(15일)을 앞두고 광주지역 일부 학부모의 촌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발 교육비리로 교직사회에서 청렴캠페인이 한창인데다, 동료교사와 학부모·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교원 평가제 시행 등이 맞물리면서 촌지관행이 사라지는 추세인 반면, 촌지를 주지 않을 경우 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학부모는 "그동안 스승의 날이면 담임교사에게 인사(촌지)하는 것을 당연시해 왔는데, 올해는 주변 학부모들이 촌지를 주면 큰일 난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면서 "혹시나 아이의 담임이 섭섭해 할까봐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학부모의 고민을 감안해 '촌지 수수 교사는 엄중 문책하겠다'는 내용의 청렴행동강령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촌지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촌지나 선물을 일체 금지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부모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있다.

광주제일고는 지난 달 말 1·2·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학교 김병채 교장은 "촌지 관행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지만,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일부 학부모의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렴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광주의 상당수 초등학교 교사들도 올 초부터 촌지는 물론 작은 선물도 사양한다는 가정 통신문을 보내고 있다. 광주 모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선생님의 통신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면서 "참 스승이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시 교육청 최윤길 장학진흥과장은 "지난해부터 교사를 대상으로 시작된 청렴 교육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만약 촌지를 요구하거나 받은 교사가 적발될 경우에는 강력한 징계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선생님, 시원하시죠?" 스승의 날(15일)을 앞두고 12일 오후 광주시 북구 오치동 서창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적십자 소년단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어드리며 은혜에 감사해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시립묘지 폐비석들 배수로 덮개로 사용 물의

고인 이름 등 적혀

광주시 북구 망월동 광주시립묘지에서 이장된 묘의 폐비석이 배수로 덮개나 돌다리 등으로 사용돼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재)광주무등묘원과 참배객 등에 따르면 광주시립묘지의 8묘원 배수로에는 폐비석 10여개가 참배객들이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돌다리로 사용되고 있다. 가로 25㎝·세로 60㎝·무게 60㎏의 이 비석에는 고인의 이름과 사망일시는 물론, 가족들의 인적사항 등이 적혀 있다.

또 6묘원의 폭 2.5m·길이 5m의 진입로 바닥에는 20여개의 폐비석이 포장된 콘크리트를 지탱하기 위한 바닥재로 깔려 있다.

무등묘원 측은 유족들이 시립묘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비석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무등묘원 측은 지난 3일 본보 취재진에 의해 폐비석이 배수로 덮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2묘원·9묘원 사이에 있던 폐비석을 치웠을 뿐, 다른 곳의 폐비석은 그대로 방치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시립묘지를 찾은 참배객 정모(32)씨는 "가족의 비석을 임의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무등묘원 관계자는 "이장 후 발생하는 폐비석 처리 비용이 25t 화물차 한 대 기준으로 250만원 가량 든다"면서 "하루 평균 10개~15개의 폐비석이 생겨나는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재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립묘지에는 모두 4만1000여기의 묘가 들어서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립묘지 8묘원 배수로에 폐비석이 덮개로 사용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大盜의 굴욕'

조세형씨, 광주 금은방 강도 장물 알선 또 철창

'대도'(大盜)로 불리며 한 때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조세형(72)씨가 장물아비로 전락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은 12일 금은방 강도로부터 억대의 귀금속을 넘겨받아 판매를 알선한 조씨 등 3명에 대해 특가법상 장물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조씨가 알선한 귀금속은 지난해 광주시 남구에서 발생한 4인조 금은방 강도들이 강탈한 장물로 사건 발생시 제기됐던 조씨의 개입 의혹<본보 2009년 7월 8일자 7면>이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4월 18일 금은방 강도 노모(56)씨에게 받은 순금 2000여돈쭝 가운데 1000여돈쭝(시가 1억1000만원)을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팔아준 뒤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내연녀와 살며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남모(66)씨 등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1970년대 말부터 주로 부유층과 유력층의 자택에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로 불렸다.

한편, 노씨 등 금은방 강도들은 지난해 4월 15일 광주시 남구 구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 시가 3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강도 4명 중 이모(52)씨를 제외한 3명을 검거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윤참 〈8019〉 김종두

농촌 빈집털이 40대 구속

광주서부경찰은 12일 농촌의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턴 문모(4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문씨는 지난해 9월 26일께 나주시 봉황면 안모(여·70)씨의 집에 침입해 귀금속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해남·나주·영광 등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며 21회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기자 kimho@

벌금 내려고 중고사이트 사기 행각

쌍나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벌금을 내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또다시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은 12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물품을 팔겠다"며 구매자들을 속여 송금된 돈을 가로챈 오모(33)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오씨는 지난 3월 15일께 인터넷을 통해 임모(24)씨가 '중고 오토바이를 사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오토바이를 팔겠다"며 현금 30만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23차례에 걸쳐 608만원을 가로챈 혐의.

○…사기 전과 13범인 오씨는 1월 동종 혐의로 만기 출소한 뒤 벌금 2100만원을 내기 위해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것.

/양수현기자 yang@

한상률 비판 전 나주세무서 직원 벌금 70만원

광주지법, 비방목적 인정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 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보호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48)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설령 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한 전 청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세청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국세청의 신뢰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등의 기소 내용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

경기 화성·강원 춘천서

남녀 8명 집단 자살

12일 경기도 화성과 강원도 춘천에서 동반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녀 시신 5구와 남자 시신 3구가 잇따라 발견됐다.

이날 오후 1시10분께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장외공단 도로변에 세워진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남성 1명과 여성 4명 등 20~30대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이날 오후 5시16분께는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모 민박집 2층 객실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업주 서모씨가 발견했다.

경찰은 두 사건이 창을 밀폐시켜 놓고 연탄을 피운 점이 같아 특정 자살사이트를 매개로 한 집단 자살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연합뉴스